박불똥, 「나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부끄럽다」

아빠! 왜 경찰이 대학생 오빠를 죽여?

"19일, 서울에 다녀왔다. 하루 자고 다음날 내려왔다. ……오랜만에 반가운 친구들을 만나 무척 반가웠다. 박재동(만화가)이가 뒤늦게 아들을 보았단다. 축하할 일이다. 〈그림마당 민〉은 여전히 활기로 가득하다. 무엇인가 되어 가는 느낌이다. 좀 들뜬 감이 없지 않지만, 새로운 기획전이 준비 중이다. 주제가 너무나 선명하여 더이상 덧붙일 것이 없는 전시회다. 몇 가지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그것은 이 전시회를 하느냐 하지 말 것이냐의 차원과는 다른 문제이다. 절제절명의 당위 문제다. 고문으로 죽어간 박종철. 그는 우리를 대신해 죽었다. 맞서 싸워야 한다. 이를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은 작가임을 포기하는 것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맞서 싸워야 한다. 이 시대인에게 주어진 우리 모두의 소명인 것이다. 오늘의 이 문제를 미래에 부채로 넘겨서는 안 된다.

의지 - 결코 고문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 를,

결의 - 고문에는 끝까지 투쟁하겠다 - 를,

폭거 - 인권 말살 - 를,

분노 - 찢겨지고 터질 것 같은 - 를,

비애 - 전도유망한 미래를 꽃피우지 못한 한, 우리의 친구를 잃은 한 - 를,

연민 - 자식 잃은 부모의 심정에 대한 - 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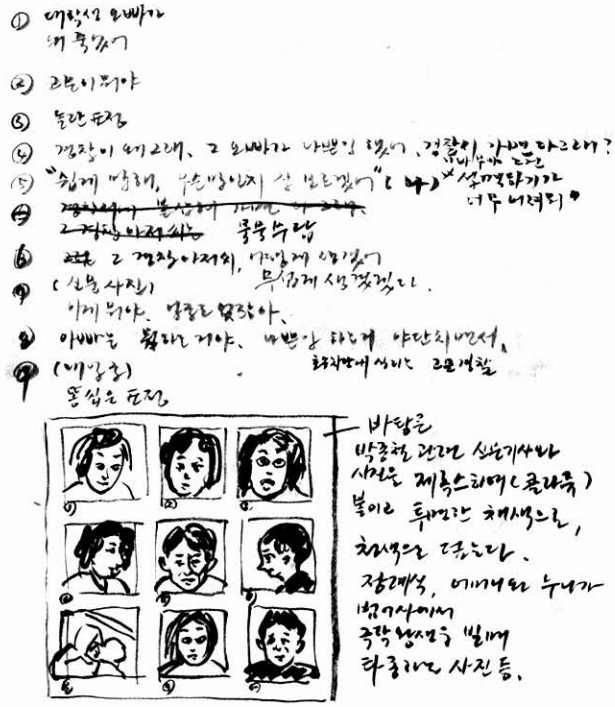
단순한 감정의 표현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사실적,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차가운 지성으로 고문의 진상을 표현해야 할 것이다."

이상은 1987년 1월 서울대생 박종철군이 물고문 끝에 죽어간 사건을 테마로 당시 민족미술협의회가 기획했던 전시회를 준비하며 써 내려갔던 내 일기장의 일부다.

나는 두 점을 제작하였다. 하나는 어린이들의 눈을 통해 본 이 사건을 만화적 기법으로 표현한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비명에 간 박종철 군을 전통적 장례식으로 극락왕생을 비는 내용을 담은 것이었다. 당시 초등학교 3학년과 1학년생이었던 우리 자식들을 등장시켜 '이러한 사태가 일어날 때까지 아빠는 무엇을 했느냐' 하는 원망을 듣는 것으로 만들었다. 우리 딸 나무가 내게 물었던 '왜 경찰이 대학생 오빠를 죽여?' 라는 질문을 작품 안에 글로 넣은 까닭에 나는 또 많은 곤혹을 치러야 했다.

그러나 내 작품보다는 도판에서 보듯 박불똥의 작품은 이 전시회 자체를 무산시키기에 충분하였다. 우리는 공권력의 완강한 힘에 직면했고, 밀고 밀리는 싸움을 거듭하였다. 이 작품은 나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나는 이 작품 앞에서 나의 비겁함을 스스로 인정해야 한다고 반성하였다. 공권력에 대한 정면 도전, 후배인 박불똥은 이렇게 용감하구나!

해학과 풍자가 있는 이 그림은 당시 상황을 극적으로 뒤집을 수 있다는 낙관을 잊지 않고 있었다.



임옥상의 작업노트

최고 권력에 대해 어떤 거침도 없이 도전하는 작가 정신이 담겨 있으며, 흑백으로 처리함으로써 이미 이런 일이 과거였다는 천연덕스런 너스레까지도 보여주는 여유를 가지고 있었다.

나는 이 그림 이후, 박불똥을 가장 유능한 후배 작가 중의 하나로 여기게 되었다. 또 하나의 명작은 신학철 형의 그림이다. 이 그림에 대해서는 다음 호에서 다룬다.

www.oksanglim.com

임옥상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및 동대학원 졸업
1974 동대학원 졸업
1979-81 광주교육대학 교수
1981-92 전주대학교 미술학과 교수
1986 프랑스 앙굴렘 미술학교 졸업
1993-94 민족 미술협의회 대표
저서 / 누가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지 않으랴
벽 없는 미술관